

강화도조약과 개항

담당교수: 배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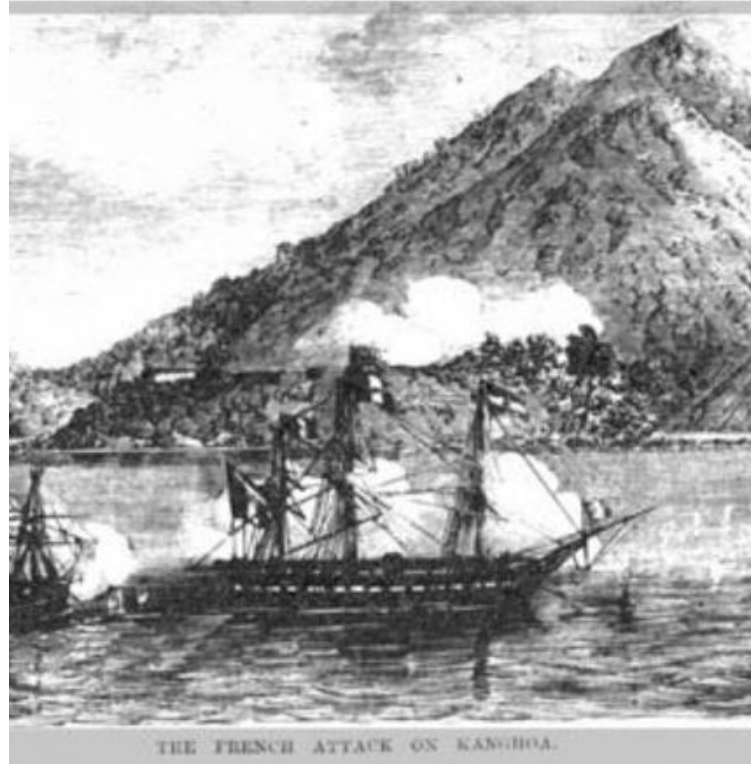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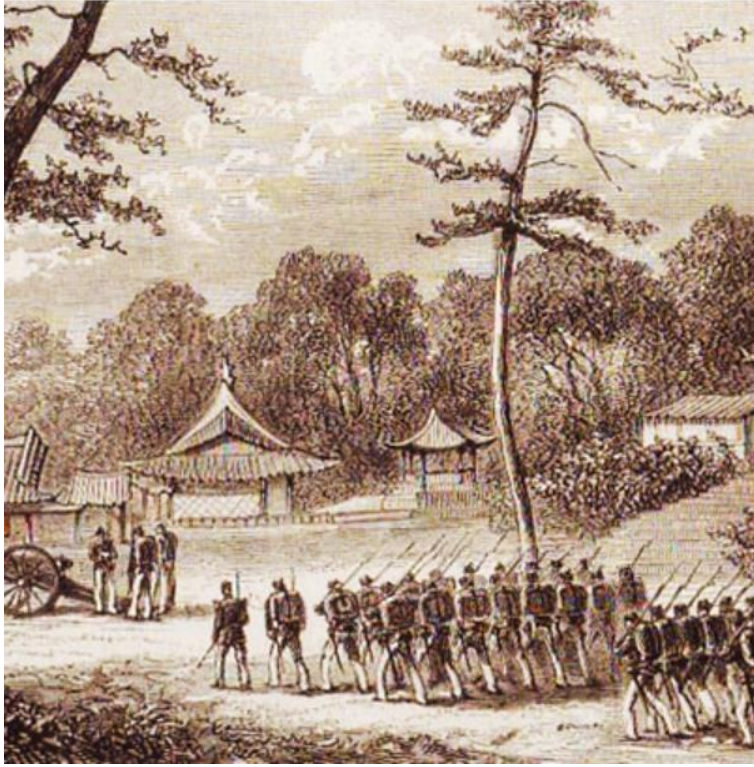
강화도조약 체결 이전

- 청나라 1842년 난징조약
 - 일본 1854년 미일화친조약
 - 한국
 -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
 - 1868년 오페르트 도굴사건
 - 1871년 신미양요, 미국
- 프랑스, 미국 모두 후발자본주의 국가

병인양요

- 배경: 1866년 병인박해
 -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 처형
- 프랑스의 보복 군사 원정
 - 1차 원정: 수로 탐사
 - 2차 원정: 강화도 침략, 정족산성 전투
- 문화재 약탈: 외규장각 도서(2011년 반환)
- 프랑스의 원정은 실패인가?





프랑스는 왜 졌나?

- 강화도 내부 지형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음
- 이 때문에 화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상륙하고도 조선군에게 기습 허용

신미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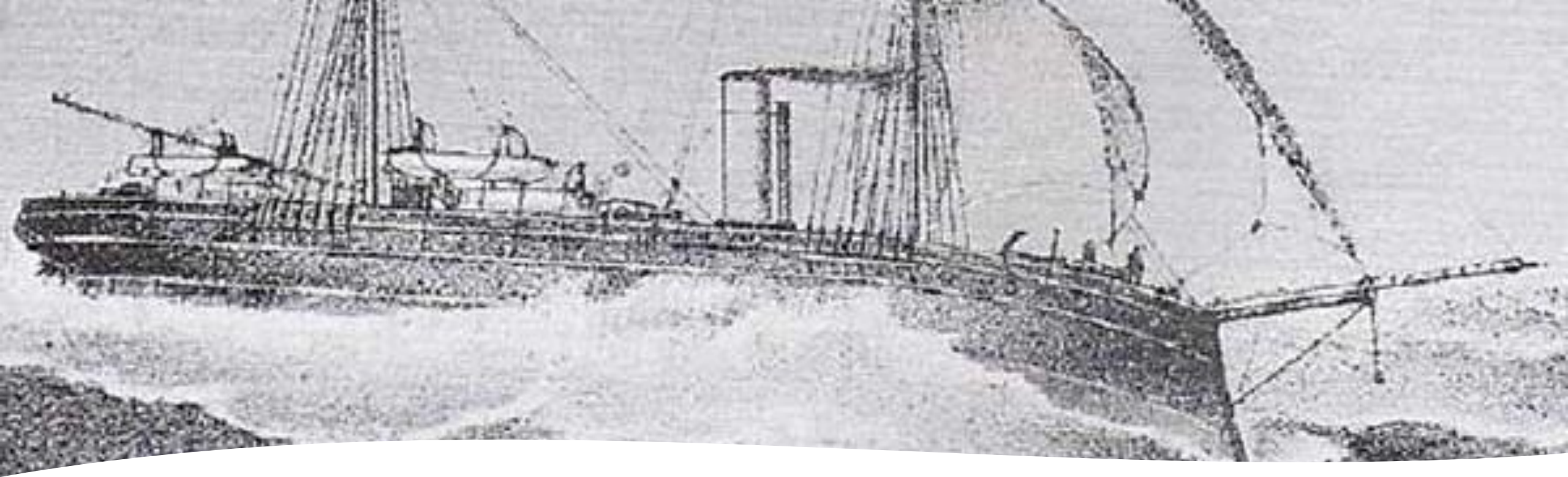
- 배경: 1866년 8월 제너럴셔먼호 사건
- 진행
 - 1871년 조선 원정 결의(개항 목적)
 - 6월, 손돌목 포격
 - 6월 10일 미군 초지진 상륙, 광성보 전투
 - 11일 미군 철수
- 성공? 실패?





미국은 왜 졌나?

- 전투 기간은 대략 10일
- 탄약, 물 부족
- 풍토병



강화도조약의 배경

- 1865년 메이지 유신
- 서계 문제(1868~): 조선 정부의 국서 접수 거부, 메이지 유신 이후 강화도조약 체결시까지 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
- 1873년 고종 친정(서무친재, 庶務親裁) but 회담 결렬(1875)

운요호사건

- 조선 정부의 서계 접수 거부: - '大日本'·'皇上' 등의 용어와 그 본문이 일본어로 된 점, 그리고 조선에서 쓰시마에 주었던 직인(圖書)의 날인, 사신 접대를 위한 연회석상에서 양복 착용
- < 군함을 파견하여 쓰시마 근해를 측량케 하면서 조선의 내홍에 편승하여 우리들의 협상에 대한 후원을 해 줄 것을 청하는 일 >

쇄국파가 아직 그 기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힘을 사용한다면 가벼운 힘의 과시로써도 목적을 이루기는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함 한두 척을 급파하여 쓰시마와 이 나라 사이를 드나들게 하고,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해로를 측량하는 체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끔 우리 정부가 우리들 사신의 협상 처리의 지연을 힐책하는 듯한 표시를 보임으로써 저들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언사를 쓴다면, 안팎으로부터의 성원을 방패삼아 일 처리를 다그칠 뿐 아니라, 국교 체결상 웬만큼의 권리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미리미리 저들의 바다를 측량해 두는 것은 훗날에 일이 있건 없건 우리에게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日本外交文書》8권, 71~72쪽)

- 1875년 5월 운요호 부산 입항
- '일본의 서계에 관해 이렇게 버틴 것이 지금 이미 일 년이 되어 가니 먼 나라 사람이 체류하는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실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문하시니 여러 대신들이 아뢰에 있어 깊이 생각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저들의 서계에 칭호를 참람하고 망녕되게 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만, 과군이니 폐읍이니 하는 禮讓하고 謙恭하는 말은 저 섬 오랑캐에게 갖추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그 나라에서 황제라고 칭한 것은 周나라 平王 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미 수천여년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서계에서 본국이 칭하는 대로 따른 것도 신하로서 부득이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이는 오직 성상께서 어떻게 포용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國制를 변경하여 크게 隣好를 닦자고 한 것이 지금까지 저지당하여 許接하지 못하고 있으니, 필시 한스럽게 여기는 바가 있을 것인바 문제를 일으킬 만한 단서가 십분 염려스럽습니다.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5월 10일)
- 1875년 9월 운요호 강화도 해안 정박, 초지진 포격, 운요호 함포사격
→ 초지진 파괴, 영종도 상륙, 민간인 살상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

- 1876년 1월 5일 접견대관 신헌(申櫟), 부관 윤자승(尹滋承) 임명
- 1차 회담 - 운요호사건에 대한 책임문제 제기
- 2차 회담 - 운요호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약체결 요구
- 3차 회담 - 회담 지연시 무력 사용 통고
- 1월 25일 신헌(申櫟)에게 교섭 전권 위임
- 2월 6일 조인식

조일수호조규의 내용과 성격

-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청국의 종주권 부인
-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언제든지 사신을 조선국 수도에 파견하여 예조판서와 친접하여 교린사무를 상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수도에 외교사절의 상주, 상주외교공관 설치
- 제4, 5관 개항장의 선정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 제6, 7관 일본 선박의 입항 및 측량 허용
- 제8, 9, 10관 영사재판권 관련
- 제12관 "위에 결정된 11관의 조약은 본일부터 양국이 신수준행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다시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존하여 양국의 화친을 두텁게 할 것이다."

강화도 조약의 의미와 결과

- 조선이 맺은 첫번째 근대 국제조약
- “불평등 조약”
 - 무관세 협정(조일수호조규 부록)
 - 치외법권 인정
- 조선은 이후 1880년대에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차례로 조약 체결

